

2018년 12월 14일, 제주시 오라동 김춘숙 씨 댁, 이효순 조사.

김춘숙(여, 1954년생, 제주시 오라동)

- 제주시 이호동에서 태어났으며, 결혼 후 연동, 노형동에서 살다가 현재는 오라동에 서 10여 년째 살고 있다.

• 줄거리: 과부의 외아들이 죽자 어머니는 차마 아들의 장사를 치르지 못했는데 아들은 보름만에 살아나서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. 저승문을 지키던 사람이 여기 올 데가 아니라면서 명주 한 필을 던져 줬는데, 옆에 있던 한 사람에게는 짚을 한 묶음 던져 줬다.

나중에 봤더니 이승으로 돌아오기 위한 열두 대문마다 명주 한 필을 열두 개로 찢어서 걸어 놓았더니 통과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. 명주 한 필은 어머니가 도둑 맞았던 것으로 그것도 남에게 베푼 것이 되어 되돌아왔고, 다른 한 사람이 베푼 것이라고는 짚 한 묶음이었다.

[조사자] 옛말 골아줍서.

[제보자] 옛날 죽은 사람,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주게. 그러니까 애월 하귀리인데 홀어멍이 아들 하나를 기웠는데 아들이 죽어 버렸어. 경혜부난 어멍은 아들을 도저히 땅속에 묻지를 못허연 보름 동안을 매일 문 열엄 보명 혹시나 보실락거릴 건가 혹시나 보실락거릴 건가 허멍 봇인디. 어느 날 살아난 거라. 보름만이. 그러니까 묻지를 안헷지. 아들이 너무 아까우니까.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부시시 허멍 “아이고, 잘 잣다.”

허멍 깨나멍

“어머니, 물이나 한 잔 줍서.”

물 먹으멍

“아이고, 느 살앗구나. 아이고, 무슨 일이고? 느 죽어그네 땅 속에 묻으카 허단도 도저히 묻지 못헤그네 이제 영 잇인디. 이거 무슨 일이고? 아이고, 이 노릇이여.”

“어머니, 나 꿈꾸당 깨낫수다. 어머니, 메칠이우꽈?”

“보름만이여게.”

경허난 이 아들이 꿈 이야기 허는 거라. 길 가당 보니까, 저승길을 가당 보니까 큰 대문 앞이 가니까 이제 지금 같은 저승사자인가 뭔지 몰라도 문서 하나

를 주명

“너는 여기 올 데 아니다. 가라.”

허는 거라.

“너는 여기 이름이 었다.”

허명 이 아들이 ‘이거 무슨 일인고?’ 허명 또 영허영 보난

“이걸로 너 갈 때.”

허는 거 보난 명주 한 필을 탁 던저렌. 지한테. ‘아이고, 이거 무슨 일인고?’

허영

한 아이도 짚 한 못을 주고. 둘이가 경햇인디

“너도 올 아이가 아닌데 너도 가라.”

허명 주는데 짚 혔 못. 경허영 햇인디 이 아들이 오당 보난 열두 대문이 잊어. 그 열두 대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심방 말미를 할 때 어릴 때 들어보은 열두 대문에 문마다 인정 걸면 요즘 같은 절간에서 글 써진 거. 다라니를 하나씩 허문 심방이 ‘인정 겁서.’ 하믄 허는디 명주 한 필로 그 열두 장을 찢었 그걸 대문마다 그냥 문이 올 때마다 문지기가 지켜네 인정 걸없던 허니까 열두 대문을 빠져 나왔던 허는 거라. 다 통과허연 경허영 깨난 거라. 경허영 어머니안트레.

“어머니, 저 다른 한 사람도 잊인디. 그 사람은 짚 혔 못을 줍디다. 경헌디 그 사람은 어떻 했인지 모르쿠다.”

허명 헌디

“어머니, 명주 한 필 어떻헌 지 알아지쿠가?”

“아이고, 옛날에 도둑 맞안 일러분 거.”

그걸 내가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도둑 맞아도 남을 배려해 준 거고 그 사람이 얼마나 못 살안 가져 갓인가. 남을 도와준 것도 저승 가믄 도움 받는 거 같애. 나한테도 도와 주는 거 같애. 그래서 그 아들 하나는 짚인가 보난 얘기 낳으려 왓인디 그 쉐막간 우리 같은 쉐막에 짚 한 대만 탁 던지멍 그거 하나 준 걸로. ‘근디 그 사람은 나왓인지 안 나왓인지 모르쿠다.’ 허영 아들이 얘기를 햇덴.

[조사자] 무사 명주마씨?

[제보자] 명주 한 필. 명주를 열두 개로 찢으멍 열두 대문마다 인정 걸어논 게. 오늘날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우리도 귀양풀이할 때 큰질 칠 때마다 심방이 ‘인정 겁서.’ 허문 다라니 놔그네 또 뭐 허문 그거 하나 틀어지고 헌 게 ‘아, 이것이 그 길이 구나. 열두 문을 헤쳐 나온 게 인정을 걸어야 나오는 건가?’ 생각이 뒷언게.

- 핵심어: 홀어멍(홀어머니), 명주, 저승사자, 짚, 도둑, 귀양풀이, 인정, 심방(무당), 아들, 쉐막(외양간), 문지기, 절간(절)